

친환경 실천 환경리더 양성 농촌 일손부족 해소 '탄력'

무주군, 분야별 전문 강사 초빙 총 5회 '환경아카데미 교육' 진행

무주군이 녹색도시 무주 실현을 위한 환경리더 양성 교육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활 속 실천 활동과 연계한 소양을 함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무주군에 따르면 24일 무주를 대차리 서면 소이나루 생태문화 공연장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읍·면·이장·부녀회장, 읍·면 환경업무 담당자, 관내 주요 환경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 환경아카데미' 교육 시동을 건다.

무주군 강 살리기 네트워크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환경아카데미는 분야별 전문 강사 초빙된 가운데 총 5회 차로 진행된다.

24일 진행된 1회 차 교육은 강살리기 추진단 오흥근 차장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수질오염의 이해와 물이야기, 농업과 수질오염, 친환경 천연제품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달 5일 열릴 2회 차 아카데미는 전북 자연환경연구소 김창선 교육부장이 강사로 초빙돼 자연 생태계 알아보기 시간을 갖는다.

이후 3회 차(8.24)·4회 차(9월 예정)·5회 차(11월 예정) 환경아카데미를 각각 열어 무주의 자연환경과 생물 서식,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환경기초 시설 방문 등으로 교육 일정이 짜여져 있다.

군은 향후 3년간 매년 120명(총 360



무주군은 24일 무주를 대차리 서면 소이나루 생태문화 공연장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읍·면·이장·부녀회장, 읍·면 환경업무 담당자, 관내 주요 환경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 환경아카데미' 교육 시동을 건다.

명) 이상 환경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정했다.

또 환경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생활 속 작은 실천 운동을 통해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문제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읍·면별 마을환경 리더 3명 이상을 양성하고 2022년 군 소속 직원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환경 의무교육으로 확대한 점도 눈길을 끈다.

무주군정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안

병량 팀장은 "환경아카데미를 통해 양성된 환경리더가 친환경 실천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녹색도시 무주군 건설을 위해 알찬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환경 아카데미 수강생에게는 환경 분야 보조사업 우선 선정을 비롯해 환경·생태분야 홍보물 제작 시 우선 지급, 환경감사자격증 발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축산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선정

진안군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하반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지역단위 운영사업자로 선정돼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형 계절근로 지역단위 운영사업자란 특정 시기에 단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농작업의 인력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올해 농식품부에서 신규로 도입한 제도로 운영사업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 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비용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상반기 4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이번에 추진된 하반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는 진안군과 충남 아산시 등 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진안군은 진안농협조합원을 운영주체로 8~9월 사이 필리핀과 베트남 등 30여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운영사업자 선정으로 단기 인

력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부담을 줄이고 농촌일손 부족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파견사업자와 비교했을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면제되어 근로자나 농업인에게 유리하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군은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선 농촌 지역으로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계절근로자 도입 및 농업인 기숙사 건립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3월 필리핀 이사벨라주와 계절근로자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베트남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등을 실시해 1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말에는 농업인 기숙사 건립 착공에 나설 계획을 세우는 등 농촌일손 부족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양봉관리지도사 2급 취득과정 교육 진행

무주군이 양봉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2022년 양봉관리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교육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 및 농가 현장포장에서 실시되며,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7회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한영동 대전충청신경생교육원장을 비롯해 김병진 이산꿀벌농원 대표, 신창운 봉산꿀꿀꿀꿀꿀리유통법인 대표, 정문규 한국양봉농협 이사장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됐다.

수강을 원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강소농육성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양봉관리지도사 자격증 3급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오동마을 토양 지하수 오염 해결 사업 착수

진안군은 악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마령면 오동마을 주변 지역에 대해 오염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토양 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에 들어간다.

군은 마령면 오동마을은 인근에 위치한 유기질비료공장과 축사(돈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고통받고, 토양과 지하수 오염 우려로 주민 집단시위가 열리는 지역으로 그간 진안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월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토양지하수 지역현안 해결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 타 지역과 경쟁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 끝에 지난 4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2억5000만원의 전액 국고 지원 사업비를 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오동마을 주변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오염조사 및 정화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수행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에코아이티이 시현연구원이 선정돼 17일에는 군청 상황실에서 악취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주민 20여명과 함께 모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 등을 논의하는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전춘성 군수는 "해당 지역의 숙원 사업인 악취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용역 수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오염원 존재 시 정화방안 등 대책 마련과 함께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향후 행정청의 로드맵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악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마령면 오동마을 주변 지역에 대해 오염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토양 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에 들어간다.

군은 마령면 오동마을은 인근에 위치한 유기질비료공장과 축사(돈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고통받고, 토양과 지하수 오염 우려로 주민 집단시위가 열리는 지역으로 그간 진안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월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토양지하수 지역현안 해결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 타 지역과 경쟁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 끝에 지난 4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2억5000만원의 전액 국고 지원 사업비를 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오동마을 주변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오염조사 및 정화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수행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에코아이티이 시현연구원이 선정돼 17일에는 군청 상황실에서 악취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주민 20여명과 함께 모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 등을 논의하는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전춘성 군수는 "해당 지역의 숙원 사업인 악취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용역 수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오염원 존재 시 정화방안 등 대책 마련과 함께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향후 행정청의 로드맵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립도서관, '부모와 함께 로봇 체험' 열려

장수군립도서관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부모와 함께 로봇 체험'이 참여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부모와 함께 로봇체험은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다양한 로봇을 직접 만들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회에 걸쳐 5가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립도서관에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아키메치 도니, 물개로봇 토토, 원숭이·개구리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만들고 블록을 통해 로봇의 기초와 구조에 대해 이해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임민구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앞으로도 군립도서관과 6개 읍·면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참여자들은 아키메치 도니, 물개로봇 토토, 원숭이·개구리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만들고 블록을 통해 로봇의 기초와 구조에 대해 이해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임민구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앞으로도 군립도서관과 6개 읍·면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농기센터, 스마트 로봇 제어시스템 시범 운영

디지털 농업 사파 자동화 기술 도입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 로봇 제어시스템을 사파 연구회 단체에 지원해 약제비 절감과 첨단 농작업 기반을 확보·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디지털 농업 사파 자동화 기술'이며 사업비 5,600만원(국비 50, 군비 50%)을 투입해 스마트 라이더 방제기(500l)를 지원한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스마트 라이더 방제기는 라이더(LiDAR)를 활용해 나무에 과실이 있는 부분을 인식하고 분사노즐을 개별 제어하여 농약 살포량을 최소화한다. 환경오염 저감 기술 장비로 나무가



있는 곳에만 농약을 뿌릴 수 있으며 나무크기에 따라 농약 살포량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사파원 기준 농약 사용량을 30% 절감할 수 있어 농가 경영비 절감도 뛰어나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 단체는 무주군 사파 주산지인 안성면 소재 덕유산 연

구회(회원 20명, 대표 이승희)이며, 사파원도 단지화되어 있어 이 장비를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승희 연구회 대표는 "농약가격 상승 부담 속에 스마트 라이더 기술 방제로 농약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어 사파 농가들의 기대가 크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소독작목팀 이화재 팀장은 "앞으로 노지 과수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것이며 가치치기와, 약제방제 등 사파 생산 전과정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무주군이 도움이 되는 노지 과수 디지털, 자동화 신기술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